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. 15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**獨, 온라인상 증오표현 방지법 추진**
  - 1.8 獨 집권연정은 SNS 등 온라인상에 살해협박·폭력선동 등 증오표현이 게시된 경우, 경찰·사법부 등에 게시자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
    - \* 소셜미디어의 극우·증오표현이 美 의사당 난입 사건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
- **러, 시중은행에 테러자금 관련 '암호화폐 계좌' 동결 권한 부여 추진**
  - 1.11 러시아 당국은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 정황을 포착할 경우, 자국 시중은행이 임의로 계좌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
- **英 싱크탱크, 외국인 테러범 추방 기준 개정 권고**
  - 1.13 英 헨리잭슨 소사이어티는 테러 관련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인권 보호를 이유로 추방하지 않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, 추방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

#### 미주

- **美 언론, 대통령 취임행사(1.20) 시 폭동 재발 가능성 경고**
  - 1.10 WP는 “大選 불복 극우주의자들이 온라인상에서 「바이든」 대통령 취임식을 방해하기 위한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있다”며 주의 촉구
    - \* 국제전략연구소는 지난해 미국내 테러 2/3가 극우주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(1.9)
- **美, 예멘 후티반군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 추진**
  - 1.10 「마이크 폼페이오」 美 국무장관은 지난해 말 예멘 아덴공항에 폭탄 공격을 감행해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후티반군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정식 통보했다고 발표

○ 美, 의사당 난동에 '국내 테러방지법안' 再발의 추진

- 1.11 「딕 더빈」 美 상원 의원은 의사당 난동과 관련하여 FBI에 △국내 대테러 담당 부서 신설, △테러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'국내 테러 방지법안'을 再발의\* 하겠다고 발표

\* '20.9월 하원은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수집 가능성 우려로 부결

## 아 · 태평양

○ 외교부, 파키스탄 카라치市 테러 위험경보 발령

- 1.12 외교부는 파키스탄 대테러 당국이 “카라치에 있는 정부 기관과 외국공관이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”함에 따라, 同 지역에 테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유의 당부

\* '20.12 중국인 겨냥한 폭발물 테러 미수, '21.1 ISIS의 시아파 광부 납치 살해

○ 싱가포르, 테러 등 범죄수사에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정보 활용 추진

- 11.8 현지언론은 싱가포르 정부가 테러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수사에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 '트레이스 투게더(Trace Together)\*'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

\* 근거리의 스마트폰이 서로의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기록하는 앱

## 중 동

○ 이라크 법원, 「트럼프」 美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

- 1.7 AP통신은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법원이 「거셈 솔레이마니」 이란 쿠르드스軍 사령관 사살('20.1월)을 지시한 혐의로 퇴임을 앞둔 「트럼프」 美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

\* 이라크 형법은 모든 계획적 살인은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

○ ISIS, 이집트 시나이 지방에서의 테러 활동 선동

- 1.11 美에 본부를 둔 대테러민간기구(CEP)는 ISIS가 텔레그램을 통해 이집트 군인을 처형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공개하며, 시나이 지방에서 이집트 軍에 대한 공격을 지속 독려 중이라고 발표

美 애리조나주, 연방 하원의원 겨냥 총기 난사 테러

- '11.1.8 10시경 美 애리조나주 투산시 소재 쇼핑센터에서 「가브리엘 기퍼즈」 연방 하원의원이 유권자들과의 정치행사 중 괴한의 총기 난사로 6명 사망·14명 부상
  - 사건 현장에는 유권자 30여명이 밀집한 상태였으며, 근접한 거리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
- 연방수사국(FBI)은 테러범 「제러드 리 러프너」 (22세)가 범행前 유튜브에 올린 反정부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근거로 정치적 테러로 판단
  - 극단주의 조직 감시단체인 '남부빈곤법률센터'(SPLC)도 범인 「러프너」가 혐오범죄 집단이나 극단주의자 명단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지만, 동영상에 反정부 운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
- 「버락 오바마」 대통령은 사건 직후, 백악관에서 생방송을 통해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, 同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

< 남부빈곤법률센터(SPLC) >

- (명칭) 남부빈곤법률센터(SPLC, Southern Poverty Law Center)
- (설립) 1971년 백인우월주의·혐오단체와 기타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분류 및 법적 소송을 위해 설립
- (활동) KKK(Ku Klux Klan), Neo-Nazi, 反무슬림 등 미국내 1,020개의 극단주의·혐오집단을 등록 관리하고, 정보를 연방수사국(FBI)과 법집행기관에 제공
- (주요소송)
  - '74년 Sims v. Amos 사건(인종차별)
  - '82년 Person v. Carolina Knights of the KKK 사건(백인우월주의)
  - '91년 Church of the Creator 사건(증오 범죄)
  - '98년 Christian Knights of the KKK 사건(백인우월주의)
  - '08년 Imperial Klans of America 사건(백인우월주의)
  - '12년 Polk County, Florida Sheriff 사건(증오 범죄)
  - '17년 Andrew Anglin and The Daily Stormer 사건(백인우월주의)